



“우주인 만날 가능성은 ‘제로’ 우주여행은 머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 이명현 천문학자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과 함께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 문학, 철학,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중형무진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셀럽들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창고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스타클로스만틈이나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던 대상이 옥토끼였다. 밤을 환하게 비춰주던 보름달의 존재감. 그 곳에서 방아를 찿으며 소원을 들어주던 옥토끼가 사실 상상 속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달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딱딱한 일상을 위로하고 싶은 마지막 낭만이었는지 모르겠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후 한동안 인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달이 희귀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으면서 세계는 지금 ‘달러시’ 중이다. 1800년대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미국에 주인없는 땅을 차지하려 했던 ‘랜드러시’가 21세기 ‘달러시’로 이어졌고 이제 인류의 욕심은 태양계 너머까지 뻗어가고 있다. 낭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별과 달을 사랑하는 천문학자가 있다. 별 좋은 밤날, 서울 삼청동에 자리한 ‘과학책방 갈다’에서 책방 주인 이명현 박사를 만났다.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시를 즐겨 읽는 천문학자. 별면지 이명현 박사가 들려주는 과학의 매력을 만나보자.

못해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가진 행성이 있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는 충분히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은 현재 인류 문명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로켓은 너무 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너무 멀어요. 우리가 몇 세대에 걸쳐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Q.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난 과학책방이 신기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집입니다. 지인이 비폭력대화센터로 운영하다 이사하면서 2018년에 과학계 친한 지인들과 과학 콘텐츠 그룹, 과학책방 ‘갈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과학문화를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고를 넓히는 책방으로 운영 중인데 과학 관련 북토크와 독서모임, 과학인생학교와 삼청 사이언스 클럽 같은 계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과학책방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과학책방 다루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과학문화의 시그니처 같은 곳이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 순회 강연을 했는데?

지난해 동갑내기 친구 셋과 ‘환갑삼이(환갑을 맞은 이씨 친구 3명)’ 이름으로 서점과 도서관 토크쇼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몇 군데를 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커져 전국 22개의 도서관과 작은 서점에서 토크를 했습니다.

Q.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부러워요.

이권우 교수와 이정모 박사는 20년이 넘게 교류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거리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 ‘과학적인 태도’가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세술일까요?

현대 과학이 알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자연 현상의 기원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던 시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종교나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훗날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학적인 태도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삶의 실천을 위한 가치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태도가 곧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Q. 정말 과학 공부야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의 일차적 역할은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일종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학자는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실존적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변혁하는 힘이 과학에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과학 동지들과 각종 강연과 행사, 그리고 독서모임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 ‘문화’로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힘써 왔습니다. 21세기 핵심 교양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의 과학이 아닌 이해의 과학, 삶과 유리된 과학이 아닌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실존적 과학이자 매일 업데이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위안을 주는 과학, 억압의 지식이 아닌 자유의 과학, 행복을 주는 과학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Q. 만약 우주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별은 어디인가요?

화성에 가고 싶어요. 낮에는 하늘이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연보라빛인데요. 노을이 지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레드와인 한잔하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들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Q. 광주-전남 예비 과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전적인 의미의 어른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선배 동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하는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자세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경이로움의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소양을 쌓고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우주시대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글·사진·정지호 작가 1018hyohyo@gmail.com

어린시절 골목길 위 반짝이던 별 보며 꿈 키워
우주강국들, 우주대항해시대 선점 경쟁 치열
누리호 3호 성공, 우리 독자 기술 세계에 보여줘

과학의 발달로 미신에 의존하던 현상 밝혀내
과학지식 바탕 합리적 태도가 최선의 처세술
실용 과학 위한 책방 운영...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이명현

별과 시, 소설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과학책방 ‘갈다’ 대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천문학계의 하버드라 불리는 네덜란드 명문 호로닝엔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캠퍼인 연구소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2009년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한국형 외계지적생명체 탐색(SETI KOREA)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했다. 서울 삼청동에 ‘과학책방 갈다’를 열어 작가와 과학자, 그리고 독자들이 있는 서점 겸 문화행사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명현의 과학책방’, ‘이명현의 별 헤는 밤’, ‘지구인의 우주공부’ 등을 저술하고 ‘침묵하는 우주’ 등을 번역했다. 이 외에도 ‘과학은 논쟁이다’, ‘궁극의 질문들’ 등 다수의 공저작을 펴냈다.

Q. 우주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기업이 주도한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대항해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문러시가 가속화되면서 한동안 외면받았던 달이 미국과 중국, 일본과 인도까지 경쟁하는 우주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발사됐는데요. 145일 만에 달 궤도에 안착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주탐사와 개발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왔는데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는 추이를 보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의 탄생이 그 결과라고 하겠습니

Q.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기지, 고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건설된 우주 기지입니다. 특히 2023년 5월 25일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3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날아올라서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 위성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걸 전 세계에 멋지게 보여준 거죠.

Q. 별을 좋아해서 천문학자가 된 건가요?

서울 답십리 골목에 살던 어린시절, 해질 무렵 서쪽 하늘에 떠 있던 밝은 별 하나가 제게는 최고의 천문현상이었어요. 그 별이 금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망원경을 통해 달처럼 모양이 변하는 금성을 보면서 이것이 야말로 최고의 천문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의 크레이터를 천체망원경으로 보자마자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소가 금성에서 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매일 보는 달에 사람이 걸 어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이 벅차고 바로 천문학자가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외계인은 정말 만날 수 있나요?
지구인들은 우주 속 존재를 가운데 인류밖에 알지



과학책방 ‘갈다’에서는 다양한 과학 서적을 만날 수 있으며 과학 관련 북토크와 독서모임, 과학인생학교와 삼청 사이언스 클럽 같은 계기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